

표 3-1. ‘홍로’, ‘감홍’사과 살균제 살포프로그램 (2014년, 군위군)

회차	살포일	살균제 종류
개화 전	4/16	fluquinconazole + flusilazole
만개 후	5/2	cyprodinil + difenoconazole
3회	5/13	propineb
4회	5/23	kresoxim-methyl
5회	6/2	dithianon
6회	6/12	captan
7회	6/26	fluazinam
8회	7/11	pyraclostrobin
9회	7/24	acibenzolar-S-methyl + dithianon
10회	8/11	metconazole
11회	8/22	difenoconazole + iminoctadine-triacetate

2014년 군위군의 날씨를 살펴보면 평균기온의 경우 6월부터 8월 사이 21.2~24.9℃로 형성하였다(그림 3-1A). 주요질병의 포자비산과 감염시기에 해당하는 5~6월 사이 61 mm의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, 7월의 경우에도 110 mm 이하의 강우로 주요질병 발생이 매우 미미하였다. 하지만 늦은 장마로 인해 8월에만 약 400 mm의 강우가 발생하였고, 9~10월까지 100 mm의 비가 내려 주요질병의 발생이 8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. 이러한 기상환경으로 인해, 7월 말까지 점무늬낙엽병의 이병엽율이 3% 미만이고, 갈색무늬병의 발생은 8월 11일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. 하지만 8월 하순부터 발생한 갈색무늬병은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. 2014년 경북 군위군의 기상개황을 살펴본 결과, 월 평균기온은 평년과 유사하였다. 하지만 늦은 장마로 인해 강우량이 8월에 집중된 것과 9월과 10월까지 100 mm 가량의 강우로 인해, 초기 병 발생은 늦춰졌으나 10월 이후까지 꾸준히 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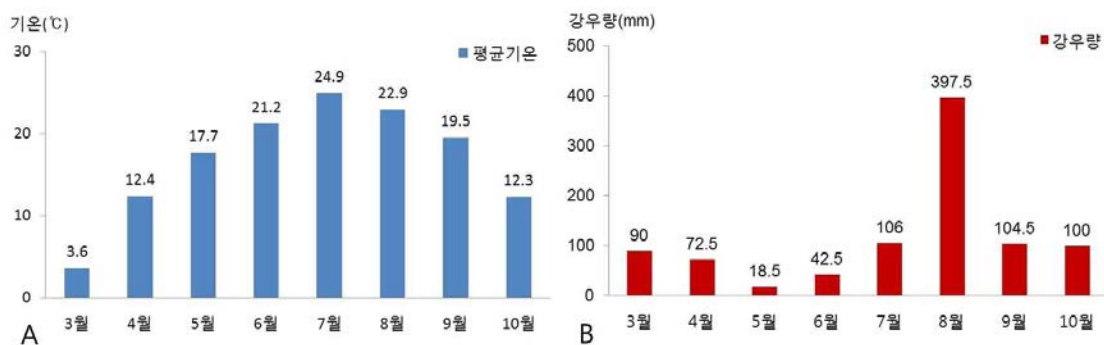


그림 3-1. 군위군의 2014년도 평균기온 및 강우량 기상자료 (좌:평균기온, 우:월 강우량)

각각의 품종별로 사과 주요 질병을 조사한 결과, 7월 중순까지 갈색무늬병, 점무늬낙엽병 등의 병을 찾아볼 수 없었다. 다만 일부 사과나무에서 0.01 % 내외의 점무늬낙엽병이 발생하였다. 하지만 7월 말부터 점무늬낙엽병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9월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(그림 3-2).